

LOCAL

2025년 4월 4일 금요일

구례, 산수유 대만 판로 개척
연간 10~50t...소득증대 기대

구례군은 최근 산동농협에서 김순호 군수와 허재근 산동농협 조합장, 송해경 농협은행 구례군지부장, 산수유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 산수유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구례는 전국 산수유의 85% 정도를 생산하지만, 최근 급격한 영농비 상승과 중국산 저가 산수유의 유입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동농협은 산수유 가격의 안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판로 확보를 추진하던 중 대만과의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최초 1.2t 분량의 선적 협의가 완료돼 수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만으로의 수출은 연간 10~50t 정도로 전망된다. 이는 산수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 수출 물량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물류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전정재 기자 dong-eah@

장흥, 사료구매자금 96억 지원
94농가...6월 12일까지 대출

장흥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96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94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료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육우 264농가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축산과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성진 군수는 "최근 사료비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60311@

정철원 군수 “낮은 자세로 담양 발전 이끌터”

재선거 당선...제45대 담양군수 취임·공식 업무 돌입
정원 문화도시·경제자립도시 조성 등 '5대 행복' 제시

정철원 신임 담양군수는 3일 "담양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는 이날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단합된 힘이 담양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편견과 갈등을 넘어 군민 화합의 길을 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 군수는 전날 치러진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돼 이날 곧바로 제45대 담양군수에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군수는 "군정이 순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전임 군수가가 추진했던 주요 사업 중 이어야 할 것은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군민과 함께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과 함께 정 군수는 천년의 영광과 번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행복한 삶이 있는 담양을 위한 '오담(五潭) 행복' 약속으로 '내륙관광 1번지 생태 정원 문화도시'와 '행복한 삶이 있는 삶터·쉼터·일터', '소득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도·농 융합 경제자립도시', '소통과 화합의 공공행정' 등의 달성을 제시했다.

그는 "민선 8기 군수로서의 임기는 그리 길지 않지만 앞으로 군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담양발전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첫 걸음으로 담양발전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다"며 "저는



제45대 정철원 담양군수 취임 (축)

정철원 담양군수가 3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제45대 담양군수에 취임, 담양 발전과 변화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늘 군민만 바라보며 같은 호흡으로 지금껏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레를 한 바퀴로 끝 수 없

마음 한뜻으로 우리 담양의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직하게 이뤄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철원 군수는 "더 정직하게, 더 철저하게, 더 원칙있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새로운 정원도시 담양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소속인 정 군수는 지난 2일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51.82% (1만2860표)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1만1956표)를 904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사례다.

담양 금성면 출신인 정 군수는 3선 군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당선됐으며,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려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군수에 입성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관광명소 '진도 바닷길 축제' 8만명 방문

지역 상권 활기...직·간접적 경제효과 기대

'제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왔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고군면 일원과 월마광장에서 열린 '제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8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전국적인 산불 재난으로 '바닷길 햇불 행진(퍼레이드)'과 불꽃쇼가 취소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4일간 바닷길이 완연히 열려 국내외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특히 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

았다. 군은 이번 축제에 총감독 제도를 도입해 '2025 새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도 아트비치, 보물섬 모도, 홍주레드로드, 미라클 콘서트 등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를 기획해 축제를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바다를 배경으로 1km 해안도로에 펼쳐진 바다 미술관 '진도아트비치'를 찾는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쏟아 냈고, 밤에는 조명과 공연을 통해 색다른 예술 세계를 경험했다.

특히 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

일간 '미라클 콘서트'를 진행하고 야간 프로그램에 대폭 확대했다.

이 결과 숙박업소는 물론 식당, 특산물 판매장, 관광지 등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었다.

군은 수역원의 경제적 효과를 불려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서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나주,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11만원 제시

물가 상승률·근로 환경 개선 등 논의도

나주시는 최근 '2025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촌근로자의 하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제정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매년 농촌 노동력 정책과 인건비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상현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의원, 농촌인력증가센터,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함께 인력소개소 대표와 노무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임금 동향과 물가 상승률,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외국

이런 결정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농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농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해 근로자와 농가 간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노동 대가를 반영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나주=조현찬 기자 pose007@

완도, 인구 활력 제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

완도군이 '2025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접수 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모 주제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청

년 지원, 생활 인구 유입 확대,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등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완도군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는 완도군청 인구 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도=김해국 기자 knh1831@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